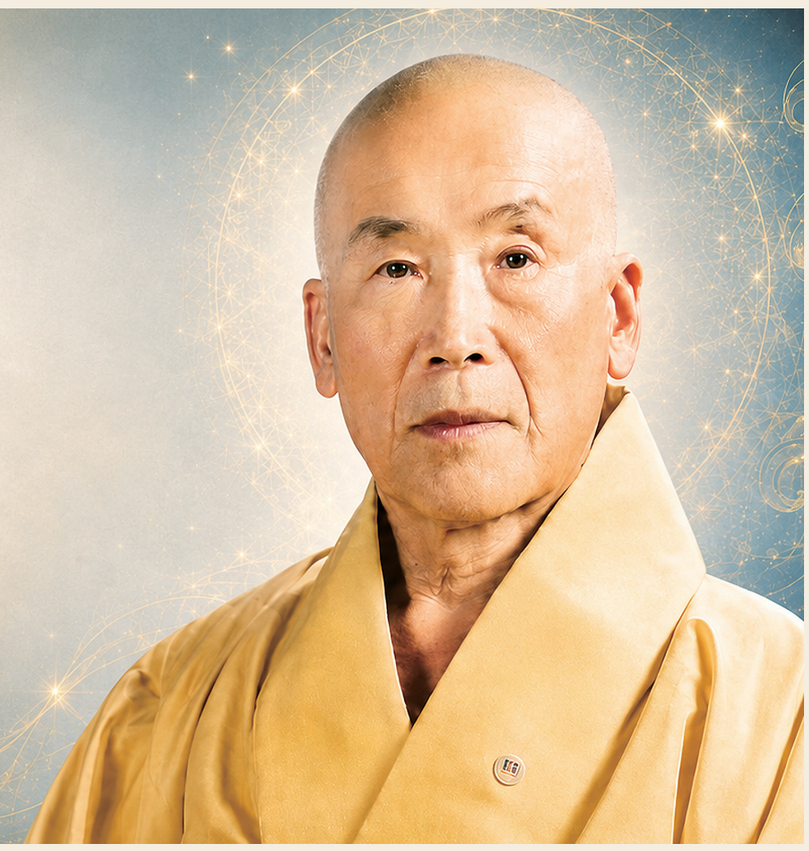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열반 30주기

평화의 사도, 一鵬 서경보 존자의 위대한 발자취



2026년 6월 23일은 한국불교 현대화와 세계화를 이끌며 전 세계에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던 세계법왕 일붕(一鵬) 서경보(徐京保) 존자가 원적에 든 지 30주기를 맞는 날이다. 세수 83세, 법납 64세로 사바의 인연을 거둔 일붕 존자는 생전 '포교 · 역경 · 도제 양성'이라는 불교의 3대 실천 덕목을 몸소 행하며 한국불교를 넘어 세계불교 중흥을 위해 쉼 없이 정진한 선지식이었다.

존자가 남긴 발자취는 방대하다. 기네스북 5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이 말해주듯, 그의 삶은 곧 불법홍포의 대장정이었고, 인류 평화를 향한 원력의 실천이었다. 열반 30주기를 맞아 일붕 존자의 탄생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되짚고, 오늘의 불교계와 사회에 남긴 가르침의 의미를 다시 새겨본다. 〈편집자 주〉

상서로운 탄생과 구도의 길

일붕 존자는 1914년 10월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리의 유서 깊은 이천서씨 가문에서 부친 서성현 공과 모친 이묘생 여사의 장자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존자는 총명함이 남달랐다. 5세에 천자문을 익혔고, 16세에는 마을 서당의 훈장을 맡을 만큼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소년 경보는 세속의 학문에 머물지 않았다. 인간 존재의 근원과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한 의문을 품고 전국의 산천과 명찰을 순례하며 참선 수행에 매진했다.

마침내 1932년, 19세의 나이로 제주 산방굴사에서 혜월(慧月) 스님을 은사로 수계득도하며 본격적인 구도의 길에 들어섰다. 이어 1935년 전북 위봉사에서 유춘담(柳春潭) 스님으로부터 '하나의 큰 붕새'라는 뜻의 법호 '일붕(一鵬)'을 받았다. 훗날 세계를 무대로 불법을 펼칠 선지식의 이름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다.

구법 열정, 선교 융합 이어지다

구법을 향한 존자의 열정은 당대 고승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1936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박한영 대강백으로부터 백파 강맥을 전수받았으며, 1940년에는 김산사 포광 김영수 스님 문하에서 수학했다. 이후 오대산 상원사에서 방한암 선사 문하에 들어 안거를 성만하며 선과 교를 두루 익혔다.

월정사 강원 강사로 후학을 양성하던 중에는 월정사 주지 이종욱 스님의 추천으로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1944년 일본 임제종 묘심사 임제전문대학 전문부에서 수학하며 선불교의 깊이를 더했고, 이 시기 쌓은 수행과 학문은 훗날 존자의 세계 포교와 교육 불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생활불교 주창, 학문 금자탑 세우다

광복 후 1950년 귀국한 일붕 존자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교화중생'과 '불법홍포'의 원력을 세우고 본격적인 교육·포교 활동에 나섰다. 진주해인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펼쳤고, 부산 동아대학교 철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태국 방콕대학교 교환교수로 활동하며 한국불교의 사상과 전통을 해외에 알렸다.

1962년에는 불국사 주지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사찰 행정과 불교교육 양면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였다. 수행자로서의 엄격함, 학자로서의 깊이, 포교사로서의 열정은 이 시기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존자의 학문적 정진도 멈추지 않았다. 1969년, 56세의 나이로 미국 템플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모교인 동국대학교로 돌아와 불교대학 학장을 세 차례 연임했다. 이를 통해 후학 양성과 불교학 발전의 기틀을 다졌으며, 정년 퇴임 이후에도 세계 각국을 누비며 학문과 포교를 이어갔다.

특히 세계 여러 대학으로부터 126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취득한 일은 존자의 학문적 성취와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는 세계 최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누구나 불법 접하는 '현대불교'

일붕 존자가 평생 강조한 것은 산중에 머무는 불교가 아니라 대중의 삶 속에서 숨 쉬는 불교였다. 그는 '현대불교'와 '생활불교'를 주창하며, 누구나 일상에서 불법을 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철학서, 교양서, 시집, 연구논문 등 평생 1,042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세계 최다 저서 출간'이라는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불교예술을 통한 포교에도 각별한 원력을 기울였다. 존자는 선필(禪筆)을 통해 불심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으며, 40여 년 동안 하루 50장에서 100장에 이르는 선필을 휘호했다. 입적에 이르기까지 약 100만 장의 선필을 전 세계인에게 나누며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힘썼다.

한국불교 현대화 · 세계화 개창
'해동 거성'의 유산을 돌아보다

세계불교 대동과 인류 평화 앞장

일붕 존자의 안목은 늘 시대를 앞서 있었다. 그는 선(禪)과 교(敎)가 둘이 아니라는 '선교일치(禪敎一致)'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세계화를 모색했다. 1988년, 75세의 나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을 창종하고 초대 종정으로 추대된 것은 그 원력의 결실이었다. 이는 한국불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

존자의 원력은 한국불교의 경계를 넘어 세계불교의 대동으로 확장됐다. 1992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세계불교대회에서 전 세계 157개국, 5,100개 불교단체의 만장일치로 '세계불교법왕청 초대 법왕'으로 추대되는 역사적 위업을 이뤘다. 또한 112개국 1,044개 단체로부터 전 인류의 스승을 의미하는 '존자(尊者)' 칭호를 봉대받으며 세계불교계의 큰 어른으로 자리매김했다.

존자의 행보는 종교의 울타리에만 머물지 않았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인류 평화와 민족 화합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전국의 길지와 세계 각국에 757개의 '통일기원시비'와 95개의 '일붕 동상'을 건립했다. 이는 불교적 평화 사상을 사회와 세계 속에 구현하려는 실천이었다.

또한 유엔(UN) 전권대사로 활동하며 국제사회에서 평화 구현을 위해 노력했고, 열반 한 달 전까지도 미국 뉴욕에서 102개국이 참여하는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협회를 주재하며 인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원력을 다했다. 이러한 공로로 1995년과 1996년 두 차례 연속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명을 바친 대장정의 마무리

일붕 존자의 생애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불사였다. 존자는 ▲세계 최다 박사학위 126개 ▲세계 최다 저서 출간 1,042권 ▲세계 최다 통일기원시비 건립 757개 ▲세계 최다 선필 휘호 약 100만 장 ▲단일 석굴법당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의령 일붕사 석굴법당 건립 등 5개 부문에서 기네스북에 공식 등재되는 대기록을 남겼다.

그 안에는 불법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려는 포교자의 간절함,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려는 학자의 열정,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를 이루려는 수행자의 원력이 담겨 있다.

평생 자신의 안위보다 중생 교화와 세계평화를 먼저 생각했던 일붕 존자는 1996년 6월 25일, 음력 5월 9일 오전 11시 40분 주석처인 세계법왕청 일붕선원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았다. 세수 83세, 법납 64세였다.

일붕 존자가 평생 실천한 대중 포교와 교육, 선교일치의 정신, 그리고 인류 평화를 향한 자비의 원력은 갈등과 반목이 깊어지는 현대 사회에 더욱 절실한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은 "일붕 존자님은 불교의 실천 덕목을 몸소 보이신 해동의 큰 선지식이자,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의 중흥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신 참스승"이라며 스님의 위업을 기렸다.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30주기 추모다례재 엄수

6월 23일, 일붕선원 대법당서
종정 대륜 스님 등 300명 참석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평생을 헌신한 일붕(一鵬) 서경보(徐京保)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숭고한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혜일 스님) 산하 일붕존자 추모다례재 봉행위원회는 6월 23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세계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제3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종정 대륜 스님을 비롯하여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 종회의장 도정 스님, 호계원장 동청 스님, 원로의원 승원 스님, 교육원장 지언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전국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단 주요스님들이 6월 23일 서울 일붕선원에 모여 일붕 서경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는 교육원장 지언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추모 의식행사와 총무부장 동심 스님이 사회를 맡은 2부 추모다례재로 나뉘어 진행됐다. 타종을 시작으로 종정 대륜 스님, 총무원장 해일 스님,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의 헌향 및 헌화가 이어졌으며, 삼귀의례, 우리말 반야심경, 종회의장 도정 스님의 상축, 호계원장 동청 스님의 행장 소개 순가 진행됐다.

종정 대륜 스님은 "일붕 서경보 스님 입적하신지 30년이 흘렀다. 사리를 수습한 기억이 새록새록하다"며 "스님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으로 꼽힐 만큼 수많은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이어 함께 절차탁마하자"고 법문을 내렸다.

총무원장 혜일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일붕 큰스님께서는 일붕선교종을 창종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셨고,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쉼 없이 정진하신 한국 불교계의 큰 어른이셨다"며 "오늘을 계기로 종단 발전과 불교 중흥, 민족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종단 주요 스님들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재단이사장 일명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다음 생에는 대도인이 되어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애쓰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열반의 순간까지 몸소 보여주신 보살이셨다"며 "오늘 추모재가 후학들이 올바른 수도인으로 거듭나고, 일붕선교종이 어디서나 빛을 발하는 종단이 되도록 발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구성표

재단이사회		종정 / 총무원		원로회의	
이사장	일명	종정예하	대륜	원로의원	혜천 현암
부이사장	경담	총무원장	혜일		법성 법선
상임이사	오원				승원 경담
이사	혜천	종정비서실장	지명		
	법도화				
	현소				
	선우				

중앙종회		종무위원			교구종무원장	
종회의장	도정	호계원장	동청	감사원장	법광	경기남부교구	지안
종회의원	재단이사회	교육원장	지언	포교부원장	덕산	경기북부교구	지흘
	고봉석경	포교원장	지명	문화부원장	해동	경남교구	덕운
	무착정암	문화원장	제법	총무부장	동심	대구교구	무상심
	서현보은	기획추진위원장	지광	총무국장	보륜	울산교구	현산
	동철성운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전북·전남교구	지명
	혜성백운심					제주교구	제법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